

# 강진 해방후 현대사 우익 편중 재조명 필요

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 개최...갈등 해결책 모색  
친일 조직 만행 발표 눈길...오기호 후손도 참여

강진군은 최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6회 강진역사문화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20세기 강진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차영수 도의원,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강진고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역사연구

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산학협동연구회, 호남사학회 등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민장지부책을 통해 본 한말 강진군민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홍영기 순천대학교 교수가 '오기호(군동출신), 윤주찬(도암출신)의 민족운동', 주철희 역사연구자가 '강진지역 현대사와 민간인 학살', 임선화 전남대 교수가 '70-90년대 대구 수동리 문서를 통해 본 어촌계 경제분쟁' 등을 각각 발표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6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김덕진 교수는 190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진과 외부사람들이 강진군수에 낸 소장 661건을 분석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설명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소장은

강진 장날인 4, 9일에 접수된 경우가 많았고 금릉학교 임원과 친일 조직이었던 일진회원의 만행 등과 같은 분쟁도 있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진=한태선 기자

주철희 역사연구자는 6.25 전쟁 전후로 강진지역에서 좌우 이념 갈등으로 나타난 갈등과 피해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 연구자는 그동안 강진에서 우익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들이 기술된 점을 지적하고 강진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해방정국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영기 교수는 그동안 강진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오기호와 윤주찬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

특히 이날 독립운동가 오기호의 후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내고장 일꾼



명현관 해남군수는 4일 오전 9시 군청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12월 중정례 직원회의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4일 오전 11시 20분 신복면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제12회 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4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공무원노조 단체협상 상견례 및 간담회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와 완도군은 최근 민선 7기 첫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 완도 민선7기 첫 당정 협의회

군정 현안 사항 공유·발전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와 완도군은 최근 소통과 협치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 7기 첫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신우철 완도군수, 윤재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 및 군 의원, 지역위원, 군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완도 해

양치유센터 건립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2단계) 조기 착공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등을 설명하고 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군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가 국비 확보 및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당과 군은 현안 사업에 대해 상시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완도=최규욱 기자

## 해남 기업음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소상공인 등 경영 민원 해결  
산업위기지역 현장소통 강화

해남군은 최근 군청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음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해남군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30여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전남도청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음부즈만 현장회의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산업



해남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음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위기지역의 민생경제 분야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권대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장은 "제안된 사안에 대해 해남군과 중앙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정책수립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

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 해남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접수

개인 1억원·단체 5억원 이내

해남군은 내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사업을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 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용자한도는 친환경농업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법인)는 5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임차료 최대 10억원 이내이다.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연리는 1%이다.

용자금 신청은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용자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내년 2월중 전남도에서 사업 대상자 및 용자금을 확정해 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를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 신안 어린이집 빈 녹지 나눔숲 탈바꿈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산책·휴식 공간 조성

신안 지역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내 방치된 녹지공간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나눔숲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산어린이집의 방치된 녹지공간을 치유를 위한 산책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산어린이집 나눔숲 대상지는 기존 수목 10여주와 잔디가 식재돼 있었으나 영유아들의 자연 속 학습휴식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7,000만원을 지원받아 팽나무 외 11종 663주를 식재했다.

또 산책로와 유아시설 포장, 앉음벽 정자등의자 등 휴게시설을 확충해 야

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우 환경녹지과장은 "군에서는 지역민들이 나무와 숲을 가까이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산림복지를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 완도 폭설대비 제설 대책 본격 가동

완도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 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실과소 및 12개 읍면 제설 담당자와 완도경찰서, 완도소방서를 비롯한 유관 기관 간 겨울철 제설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총괄적인 제설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연화칼슘 살포기 13대 등에 대한 정비·점검과 제설 인력 540여 명을 비롯한 제설 자재를 확충했다.

또 각 읍면과 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취약구간 중점 관리, 경찰서, 우리 지역 군부대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목포 동절기 도로제설단 발대식**

목포시는 최근 제설장비 차고지에서 '동절기 도로 제설단 발대식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시는 시내일일 도로 15개 노선 228.6km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간선도로 연화칼슘 살포차량 6대, 이면도로 소형살포기 차량 5대, 지게차 2대, 도로정비 차량 4대 등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 장산면여협 김장 나누기 봉사**

신안군 장산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산면 자원봉사자회와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는 김장 700포기를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130여세대에 전달했다. 또 ㈜사임골리에서는 생리대를 전달했다.

김매자 여협회장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장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목포 섬지역 소통의 날 운영**

목포시는 최근 유달동 달리도에서 김종식 시장, 김후환 시장의,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동시청 행사 부스를 유달동 달리도분교에 설치하고 이동시청 개청식을 가진 뒤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가족 예방접종, 방역, 영농·영어·의료 상담, 치과 검진, 한방치료 등을 실시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암사회복지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수강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장애인인 직접 준비한 방송댄스, 퓨전난타, 하모니카,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라인댄스, 우리춤, 문화댄스와 여성 수강생들의 진도복춤 등 총 10개팀이 즐겁고 활기찬 공연을 선보였다.

/영암=최복섭 기자